

GTM



국제푸른나무는 세계의 장애인과 어린이를 돕는 국제구호NGO입니다.

Green Tree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relief NGO that helps the world's disabled people and children.



국제푸른나무는 통일부 인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국제NGO로서 '세계를 돕는 하나의 코리아(One Korea to serve the world)'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개발협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문가 양성 및 통일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문화교류협력을 추진하며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모델 통일사업을 추진합니다.



표지 사진 이야기

국제푸른나무가 급식 협력지원을 하고 있는 북녘 아동시설의 어린이

연락처

카카오톡: gtreek11
페이스북: 국제푸른나무
후원문의: 02-3482-2000
www.greentreekorea.org
desk@greentreekorea.org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760737-04-007453
(예금주: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해외후원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Account No. 760768-11-003910
(Greentree International)
SWIFT Code. CZNBKRSE.
root@greentreekorea.org

발행처_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 주소_(06062)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8-2 5F
발행인_곽수광 | 발행일_2020년 4월 9일 (통권 8호)

Contents

GREEN TREE INTERNATIONAL ANNUAL MAGAZINE VOL. 8

감사의 말	04	곽수광 이사장
대학생 인턴과의 통일 토크	06	
뉴코리아비전사업	10	
통일인재양성사업	16	
국제개발협력사업	25	
국내지역본부사업	31	경산, 충남
해외사업본부소식	32	
후원자 인터뷰	34	개인, 단체
GTI 뉴스	38	
후원해주신 분들	40	
재무보고	42	
나눔참여 안내	43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제푸른나무의
후원자님들께

국제푸른나무가 새롭게 등지를 튼 청담동 새 사무실에서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전 지구적 재난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의 크기가 어떠한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웃들의 어려움에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런던에서 국제푸른나무와 CCCG (런던 시내 직업교육전문대학 연합)가 함께 주최한 포럼에 북

측 인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포럼 주제는 북녘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것이었으나 북측의 불참으로 인해 긴급하게 UN지속가능개발목표에 근거한 북측과의 협력을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효과적으로 북녘 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바로 추진하고 싶은 많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지만 이제는 언제 실현이 가능할 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녘의 장애인들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과제는 너무 크고 엄청난 규모로 닥쳐오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에 그저 막막한 마음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시기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일상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우리의 다음 스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3세기 중반 로마시대에 전염병이 돌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피신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을 때에, 그 당시 마이너리티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폭발적인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국제푸른나무의 모든 직원분들과 후원자님들께서 더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의 손길이 북녘 땅과 마다가스카르에, 네팔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라도, 방호복 한 벌이라도 지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개인번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사 중에서)'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푸른나무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국제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올림

대학생 인턴과의 통일 톡톡



Q. 자기소개와 국제푸른나무와의 인연 소개 부탁 드려요.

이현지 ■ 저는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2월까지 인턴으로 근무했던 이현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학 중이구요, 3학년을 마친 겨울방학 때, 씨티은행과 경희대가 협력해서 NGO단체에 인턴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선발이 되었고, 1순위로 통일 분야를 지원했었는데 그때 국제푸른나무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 저는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인턴을 한 이지연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의 1순위는 아동 쪽이었는데 집과 회사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거리 순이라는 우연한 기회로 국제푸른나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Q. 인턴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연 ■ 저는 다양한 NGO단체에서 봉사, 서포터즈 활동 등을 했었는데요, 국제푸른나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출근할 때 설레고, 퇴근할 때와 인턴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다른 인턴을 하거나 근무를 하면서 이 가족같은 기분을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

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제푸른나무가 남북협력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기획,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선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일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학생으로서 남북관계협력에 대해서 다시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현지 ■ 인턴을 하면서 새로이 알게 된 점은, 북측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NGO에서도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히려 어쩌면 정부보다 더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단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구요. 또 저는 UN에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문 영작을 맡았었는데, 사실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NGO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보내면 그래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단순히 정부가 다 했던 것이 아니라 NGO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Q.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현지 ■ 통일은 교육, 정치, 체육활동 등 사회 모든 영



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작은 영역 일지라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독일도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었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통일 교육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독일 통일의 과정과 결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교류를 하는 것들이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통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사실은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들도 다 하나의 통일 과정으로 기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통일이 안 됐다고 해서 통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지금이 이 자체가 통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고, 남의 일,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통일'하면 도장을 찍어야, 악수를 해야, '자, 이제 통일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통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통일은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연 ■ 차근차근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무하면서 사업기획서를 써볼 기회가 있어서 요리대





회 같은 문화 활동을 기획서에 제시했었어요. 전통, 문화, 우리들의 인식이 먼저 통일되어야 정치, 경제의 통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차근차근 해야만 완벽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다 보면 또 다른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문화와 인식에서의 통일부터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통일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주변 친구들은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 같나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통일을 자신과 밀접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연 ■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별 생각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단, 이산가족문제 등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의 아픔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북녘과 공유하는 기억이 전혀 없어서 공감이 잘 안되는 반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다보니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통일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통

일에 관한 수업을 받아보지만 학생들이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드라마나 흥미로운 영상은 잘 보게 되잖아요. 미디어를 통해 북녘에 대해 조금씩 접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차원에서는 저처럼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피력한다면 친구들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해요.

현지 ■ 저는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아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설득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제나 일자리 등에 관련해서 접근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들보다는 인식 변화가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통일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통해서, 통일의 필요성 혹은 통일의 효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Q. 다가올 통일을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현지 ■ 저는 우리가 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통일을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북녘과 관련한 기사를 일주일에 하나씩 보기' 정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사를 읽을 때 '이 글에서 사실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해외에서는 북녘이나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룬 외신 기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면 해외 기사를 같이 보는 것을 추천해요.

지연 ■ 유튜브를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요즘 북녘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영상이 굉장히 많고 가끔씩 영상을 보다보면 관심도 더 가더라구요. 다만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구요. 저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짧은 10분 영상이라도 보면 그래도 전보다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주전에 봤던 영상이 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탄 기차에서 북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댓글을 보니 '어, 북쪽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 말이 통하고, 언어가 비슷하고, 비슷한 생김새에다가 비슷한 농담도 웃으면서 한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니 **이렇게 비슷한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소통도 못하고, 문화도 공유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느껴져서 저도 울컥했어요.** 다른 매체보다도 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Q. 통일이 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지연 ■ 가끔씩 강원도 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조금만 가면 저쪽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혀 있잖아요? 그런게 사라지면 정말 넓은 초원이나 들panse 가서 한번 밟아보고 뛰어보고 싶어요. 또 백두산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을 통해서 가는 것 말고요. 백두산 천지에서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건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할머니의 고향은 여기 남쪽

이지만 전에 북에 잠시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전에 지내셨던 곳을 같이 가보면 굉장히 의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꼭 해보고 싶어요.

현지 ■ 예전에도 생각했던 건데, 통일이 되면 교과서도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남북의 이념과 가치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도덕 교과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인식, 가치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통합되기 어려운 교과목이지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남북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유되는 가치들을 위주로 도덕 교과서를 개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연구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요.

Q.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과 독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지 ■ 인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국제푸른나무는 직원은 몇 안되지만 다들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과 성실성을 믿고 후원을 해주셔도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 ■ 국제푸른나무에서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후원자분들께도 어찌보면 국제푸른나무가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후원을 통해 북녘의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기회를 국제푸른나무에서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단체는 작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국제푸른나무가 통일의 기회가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리 | 편집부

뉴코리아 비전사업

국제아동절 놀이행사 협력개최

1차 방북 (06.24-07.03)

2차 방북(11.27-30)

나진선봉 · 두만강지역 어린이 급식사업

1 국제아동절 놀이행사 협력개최

북녘에는 어린이를 위한 6월 1일 국제아동절이 있어요. 국제푸른나무는 2018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산하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과 지역 아동시설이 국제아동절을 맞이 함께 진행하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통합놀이행사를 협력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지체장애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종 체육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마음을 열고 우정을 쌓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북녘 꼬마친구들도 함께 어울리며 마음이 더욱 밝고 따뜻해진 시간이 되었을거예요.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북녘에서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인 어린이가 화합하는 귀한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는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1차 방북 6/24-7/3

북녘 청각장애인 여성 약 20명의 바리스타 직업교육을 위하여 커피 그라인더, 앞치마, 계량컵, 여과지, 머그컵, 계량스푼, 종이컵, 생두, 원두 등의 바리스타 용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직업재활을 통해 삶의 의지와 희망의 빛이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여성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응원합니다!

3

2차 방북

11/27-30

국제푸른나무 박수광 이사장, 이은영 사무국장이 함께 방북하여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든든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PRK주재유엔사무소(전 유엔개발계획대표부)를 방문하여 상주조정관과 회의를 가졌으며, 유엔에서 북한 장애인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북녘 장애인을 위한 CRPD* 이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푸른나무 사업들에 협력할 것을 상호협약하였습니다.



■ 박수광 이사장과 유엔상주조정관 Frode Mauring



CRPD를 아시나요?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약자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애인생산실습장으로 이용하게 될 장원락원합작회사 소속 실습장에 방문하여 시설답사 및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푸른나무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해외동포원호위원회 방문,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모니터링 등의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4 나진선봉 · 두만강지역 어린이 급식사업

나진선봉 지역 약 140명의 어린이들과 두만강 지역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들 약 125명을 대상으로
급식협력사업을 지속했습니다.

식재료, 빵, 콩우유(두유)등이 전달되며 후원자님들의
귀한 마음이 모여져 어린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업지에 방문하는 대북활동가는 시설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기와 활기가 넘쳐서 수납장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친구와 장난을 치는 일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참 흐뭇했다고 하네요. 따뜻한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협력사업은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같이 친구와 장난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복녘의 아이들입니다. 급식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기에 더욱 많은 영양 공급을 받아 쑥 자라나고 있어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

통일인재 양성사업

한반도 평화 창업아이디어톤

평화 스타트업 단동워크숍

평화 스타트업 멘토링

오도산 통일전망대 전시회

통일보건의료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제4회 통일사회복지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1

한반도 평화 창업아이디어톤

7/19-20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봄이 오는 듯했으나 이후 남북관계는 점점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설립 이후부터 줄곧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건전한 통일운동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분야에서 접근해 보기로 결정하고, 사회적 경제 방법을 활용한 남북협력 창업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는 프로그램을 총 4단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창업에 관심있는 40명의 참가자들을 선발하여 무박 2일간 한반도평화 창업아이디어톤을 개최했습니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을 합친 말로, 무박 2일간 마라톤 뒤통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발전시키는 대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창업을 접목시켜 남북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고안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미션이었습니다.

앞 시간은 비즈니스 모델, 고객과 시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녘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북녘 문화를 함께 알아보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후 각 팀은 삼삼오오 모여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멘토진의 코칭을 받으며 사업 준비부터 실행 방식까지 아우르는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사업 대상과 아이템을 전지 위에 구체적으로 그리며 상상해보고 다른 팀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시작될 최종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밤을 지새우며 토의와 보완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밤새 고안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1조부터 8조까지 긴장감 있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표를 주의 깊게 들으며 질의응답을

이어가고,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각 조의 평가를 취합하여 팀워크상, 오투기상, 우수상,



대상 수여가 있었습니다.

무박 2일의 행사를 마치며 문○○ 참가자는 “평소 북녘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녘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거기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만들어보면서 통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한반도평화 창업아이디어톤 모든 참가자 분들의 아이디어가 멋지게 실현되어, 함께 잘 사는 통일한반도를 이루는 미래 남북경협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원해주신 행정안전부와 모든 참가자 분들, 멘토진 및 협력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 평화 스타트업 단동워크숍 8/22-24

아이디어톤에서 우승한 '하나로팀'과 함께 (2박 3일) 중국 단둥으로 출발했습니다. 북중접경지역을 탐방하면서 남북협력 창업아이템을 더 구체화하고 현지 남북협력전문가를 만나 멘토링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만나 소통하고 그들의 생활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사회통합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소통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일보고, 압록강 등지를 방문하여 북녘을 조망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북녘 땅과 북녘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볼 수도, 만나지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마음으로부터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제푸른나무' 검색, 단동워크숍 현장을 영상으로 살펴보세요!)

#3

평화 스타트업 멘토링프로그램

10/15, 24, 31

아이디어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두 팀이 10월에 다시 모여, 총 3회에 걸쳐 각 팀별로 전문가에게 심층적인 멘토링을 받고 남북교역 추진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로 팀은 농업 분야 중 버섯재배를, 툰드라 팀은 수공업 분야 중 수제구두를 아이템으로 삼았으며 참가자들은 기존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더욱 현실성 있게 다듬고, 남북협력을 위한 창업 기획을 완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4

오두산 통일 전망대 전시회

12/10-15

두 팀의 창업 기획 내용을 홍보하고 통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오두산 통일전망대라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고안한 배경과 의미, 제품의 장점, 시장성 등을 다루어 전시를 참관한 분들에게 한반도 상생의 길을 남북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시장 한 켠에는 단동 트립 당시 생생하게 느꼈던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참가자들의 염원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지난 여름 한반도평화 창업아이디어톤으로 시작하여 단동트립, 팀별 멘토링, 통일전망대 전시회로 이어진 여정은 통일을 더 선명히 그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남북협력 창업에 대한 마음을 품고 통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선한 영향력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모두가 통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실을 맺는 한반도의 가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통일보건의료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6/4-25

올해는 그간 이어왔던 통일사회복지 아카데미뿐 아니라 분야를 확대하여 보건의료분야 종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보건의료전문가양성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강의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총 5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북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활동을 펼칠 전문가를 꿈꾸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WHO, 유니세프 소속으로 북녘에 파견되어 공중보건, 감염예방 관련 사업 활동을 수년 간이었던 나기 샤픽 박사가 첫 강의를 맡아 북녘의 보건의료 상황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생생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박사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인도지원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교류활동을 통해서 북이 외국인일, 외국인이 북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만났던 북녘 사람들은 미디어로부터 들었던 것보다 친절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북녘은 점점 국제사회와 지식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라며 “제재가 효

과가 있었던 적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라는 말로 인도적 협력활동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은 북녘의 문화, 보건복지 현황, 보건의료 체제의 배경 등 북녘 이해의기초가 되는 지식부터 시작하여 최근 북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국제사회협력 내용과 중요성 및 남북보건의료체제 특성과 통합 등과 같은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특별순서로 강사와 수강생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대북보건의료 교류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6

제4회 통일사회복지 전문가양성 아카데미

8/27-9/10

동일한 장소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제4회 통일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통일 사회복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 남북 복지의 기본 방식, 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또한 **통일이 '연애'라면, 통일이후 이루어지는 통합의 과정은 '결혼'과 같다**는 재미있는 비유와 함께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 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복지분야 전략으로서 국제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복벽이 장애인 분야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기구, NGO와 협력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동일한 꿈을 꾸며 아카데미에 참석해주신 모든 수강생 분들과 귀중한 지식을 전달해주신 강사진, 지원해주신 서울시 및 큰 관심을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CCCG와 MOU 체결

마다가스카르 스쿨팜 프로젝트

1 CCCG와 MOU 체결

북녘 장애인들이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더욱 건강한 자활을 이뤄 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2월 14일 영국 Capital City College Group(CCC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CCCG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영국 최대 직업교육 기관으로, 이곳의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최근 CCCG와 국제협력포럼을 공동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CCCG의 강점인 베이킹, 요리교육, 바리스타 교육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북녘 장애인들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선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국제푸른나무 광수광 이사장과 CCCG의 로이 오샤이네시(Roy O' Shaughnessy) 총장

2 제2회 국제 개발협력회의의 개최

2020년 2월 12-13일 IDCF조직위원회(국제푸른나무 협력)와 영국 CCCG가 미래 KORE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포럼(IDCF)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국제협력 대북사업을 통해 북측과 세계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함께 달성해가는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이며 국제푸른나무의 홍보대사인 송솔나무님의 연주로 시작된 본 행사는 광수광 이사장과 CCCG의 로이 오사이네시 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제1대 북 주재 영국대사관 대



사를 역임한 짐 호어(J E Hoare) 전 대사의 특별한 서면 축사가 있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 광수광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제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 포럼의 비전, 이 포럼이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우정이 싹트고, 미래



SDGs를 아시나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약자로, UN과 국제사회의 글로벌 목표이며 세계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기아 종식과 같은 17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전세계적 행동입니다.



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는 국제재활협회(RI) 유럽 지부 부대표 닉 커레이가 ‘보건복지 분야 협력사업을 위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RI의 주요 협력사업 및 성공적 협력사업을 위한 10가지 수칙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재활연합(Global Rehabilitation Alliance)의 대표이자 하노버 메디컬스쿨의 크리스토퍼 구텐브루너 교수가 ‘DPRK의 재활의학’이라는 주제로 재활의 개념과 기능, 북녘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의학 및 협력내용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맨체스터 대학의 차지호 박사가 ‘DPRK에서의 인도주의적 보건’을 주제로 북의 보건시스템을 설명하고 해당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를 연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의로는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DPA Singapore) 사무총장 마리사 박사가 ‘DPA인클루전 앰버서더 : 장애인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창조’라는 제목으로 협회의 활동과 싱가포르의 장애인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이자 현 사단법인 선양하나의 양창석 대표가 ‘DPRK 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개발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북의 장애인권리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협력이 강조되는 장애인복지 사업분야를 강연하고, 선양하나에서 시행 중인 대북협력사

업을 소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최초의 WHO 인증 제약회사로 북에서 14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평성제약 공동 설립자 토니 미셸 박사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빈곤 퇴치, 건강 관리 및 지역 사회 개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 형식의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강연하고 평성제약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VR제작사 텍톤스페이스 안효진 대표가 ‘장애인의 직업 교육을 위한 가상 현실(VR)의 실제 사례’를 제목으로 실제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VR컨텐츠 개발 사례와 기술을 소개했으며, 강연장 한 쪽에는 실제 VR 기기를 전시하여 포럼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VR기기를 실제 사용해보는 장면은 아주 신선한 광경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로 IDCF 사무국의 이은영 사무국장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미래 한국’을 주제로 SDGs와 대북 장애인사업을 접목한 내용과 그 사례로 국제푸른나무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마리사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탈리아대사관 일등서기관 살바토레 마리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 CCCG의 로이 오샤이네시 총장, 맨체스터 대학 차지호 박사가 함께 대북협력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목적, 사업자금 확보의 문제, 관련 제재 상황 등



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국내의 대북협력사업 준비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공유되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열정적인 강연과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행사에 임하여 당일 포럼장은 풍성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쌓는 장이 되었습니다. 패널 토론 이후 CCCG의 로이 오샤이네시 총장의 폐회사로 컨퍼런스를 마쳤습니다.

포럼 둘째 날에는 CCCG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에서 운영하는 중증 정신장애 학생들을 위한 알렉산드라 센터에 방문하여 시설 견학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장의 소개와 함께 교육현장을 둘러보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어떻

게 응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남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응원하며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올해도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미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IDCF를 통하여 남북 및 세계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계속하여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지원해주신 후원사 측과 공동 개최한 CCCG 및 모든 참가자 분들과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마다가스카르 스쿨팜 프로젝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T지정기탁사업 '마다가스카르 빈민지역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스쿨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묘목장과 자립형 농장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과실수를 보급함으로써 아이들의 학교 출석률을 높이고 먹거리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호전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국내지역본부

소식

■ 경산지역본부

경산청소년아침무료급식센터활동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아침 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주 수요일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끼의 아침식을 준비하기 위해 30여명의 봉사자들이 수고하여 180여명에게 따뜻한 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라면 250박스를 비롯하여 우유 1,200통, 즉석밥, 쌀 등을 이들 가정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경산청소년힐링센터

힐링페스티벌개최

2019년 12월 20일 겨울방학을 앞둔 청소년 140여명을 초청하여 힐링페스티벌을 개최 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경산시 자원 봉사센터와 여성봉사단체 경산수정라이온스 클럽이 봉사활동으로 함께 참가해 주었습니다. 한학기 동안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린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만큼은 마음껏 먹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오카리나 연주도 하는 등 재미난 활동을 하였으며, 119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위문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 충남지역본부

지역사회물품나눔

충남지부는 (주)다솔(FRIGGA)로부터 화장품 미스트 1060개(시가 9,540,000원)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품은 충남지역 당진에 있는 이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천안임마누엘교회 노인대학, 천안밀알장애인선교회, 예산 지역 아동센터, 노인요양원, 사랑의다리장학회등에 전달되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FRIGGA(프리가)로부터 나눔을 받은 미스트의 향기처럼, 앞으로도 충남지부의 나눔활동이 지속되어 지역사회에 향기로운 자취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외사업 본부소식

네팔 그린트리 패션 아카데미



패션 아카데미는 열심히 자립 중!

학생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봉제기술부터 패션디자인까지 기성복 제작의 전과정을 다루는 수업을 듣습니다. 총 15개월의 기초과정을 끝내면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제작하여 옷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특성과 재능에 따라 기초 과정 및 심화과정을 교육받으며, 2019년 3월에는 한 해동안 배운 기술과 지식을 선보이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카데미 주변 학교의 교복을 의뢰받아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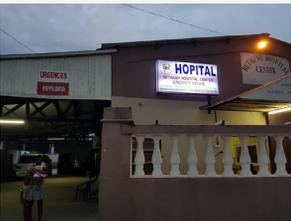
수 제작하고 납품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의 실력이 점점 더 늘고 열심히 자립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장소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교육 공간에서 수업, 실습, 그 외 납품 작업 등 모든 활동을 했지만 새로운 센터에서는 교육시설과 작업장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축이 순탄하게 잘 마무리되어 우리 기특한 네팔 학생들이 더 쾌적한 공간에서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리더십 사업본부

마다가스카르 베다니 병원 개원식

2019년 4월 26일 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 지역에서 베다니 병원의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주재 한국대사 임상우 대사님과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 지역 귀빈들이 함께하였으며 현지 학생들의 노래와 춤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옆 창고형 건물을 임대하여 부족한 병실과 병원식당, 간호학원 등의 공간으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학원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양육하여 병원과 연계함으로써 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암파신디바 초교 개원식

지난 2017년 사이클론에 의해 무너진 암파신디바 초등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푸른나무 아프리카리더십도 협력하여 2019년 4월 재건을 완료하고, 6월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도지사님과 군수가 개원식에 참가하였고, 학생들의 축하무대로 더욱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림 아프리카 뮤직 콘서트

2019년 4월 27일 서울 이디야 커피랩 컬쳐홀에서 마다가스카르 병원지역과 다음세대 교육지원을 위한 드림 아프리카 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방송인 김용만 씨의 사회, 홍보대사 팝페라가수 박정소 씨의 공연, 배우 이연희 씨의 축사와 배우 정준호 씨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축하영상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였습니다. 공연 후에는 국제푸른나무 광수광 이사장님과 한승희 박사님의 고민 즉문즉답 드림토크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개인후원자 인터뷰 |

이경민

후원자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9살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학습 스테디 플래너로서 다른 사람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반갑습니다. 국제푸른나무 후원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친구와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통일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고 북녘에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나라 NGO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계속 대화하다 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북녘에 대해 관심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서 그 자리

에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때 “나도 후원할래.”라는 말이 흔쾌히 나왔던 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하지 않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Q.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후원을 지속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 기관을 통해 국내의 어르신들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뒤에서 응원을 해주려면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

로도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계속 할거예요. 후원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고 행복해요.

Q. 평소에도 많은 나눔을 해오셨군요. 이경민 후원자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나눔을 특별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쓸 만큼의 분량 외의 나머지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건 제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같이 잘 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나누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Q. 국제푸른나무도 결국 남과 북이 같이 잘사는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통일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마음과도 통하는 것 같네요. 후원자님도 평소에 통일을 생각해보셨나요?

솔직히 몇 년 전에만 해도 통일에 대해 비관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북녘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되고 통일에 대해 자꾸 관심이 가게 되더라구요. 처음에는 북녘에 물품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홈페이지를 자주 찾아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 북녘 사람들의 생활모습, 입는 것, 먹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이 가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내가 북녘을, 통일을 싫어하지 않는구나. 내가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통일이 되어 서로 잘 맞춰 살아가면 더 강성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이경민님의 후원을 통해서 통일이 준비되어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통일이 오게 된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냉면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싶어요. 그 가게는 냉면은 잘라먹는게 아니라고 하면서 가위를 안 준대요. 또 북녘의 명소들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후원이 북녘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만나서 보고 한명한명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1순위예요. 통일이 된다면 국제푸른나무에서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Q. 어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갖고있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북녘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다 보면 사람들은 알아주거든요. '저기 되게 좋은 데야. 나도 같이 돕자.'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NGO를 운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또 뜻이 모이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처음의 뜻 그대로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인터뷰를 통해 나눔에 관한 아름다운 생각들과 진심을 함께 공유해주신 이경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단체후원자 인터뷰 |

더라이프지구촌교회

김인환 목사

회복을 위한 통일을 꿈 꾸며 기도하는 더라이프지구촌교회의 김인환 담임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Q. 안녕하세요 목사님. 먼저 '더라이프지구촌교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라이프지구촌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31명의 개척멤버와 함께 송구영신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3.3.3.비전(3000명의 제자공동체, 300개의 마을공동체, 30개 교회분립개척)을 허락하셨고, 그 비전의 첫 발걸음으로 더라이프지구촌교회 동탄채플을 2018년 10월에 개척했습니다.

Q. 어떻게 국제푸른나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나요?

먼저 광수광 대표님과과의 인연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제코스타에서 광수광 대표님이 총무님으로 일하실 때, 강사와 총무로 만나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품게 하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 광 대표님이 국제푸른나무를 시작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포의 한 식당에서 몇 분의 목사님들과 밥을 먹자고 하시어 나갔더니, 갑자기 국제푸른나무 비전을 설명하면서 후원이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지요. 비싼 밥 먹고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태자는 광 대표님의 말에 순종했던 것이 시작이 되어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Q. 많은 교회들이 주로 기도회 중심으로 통일준비에 동참하고 있는데, 더라이프지구촌교회는 2018, 19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 복녘의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찬양집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가요?

개척 때부터 저희 교회는 절기특별헌금을 의미있게 나누어 왔습니다. 개척하자마자 모은 창립특별헌금을 월드비전의 요청으로 송파에 있는 노인복지관 식당 개선 사업을 위해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나눔이 교회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 중에 국제푸른나무와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오던 복녘 나눔을 공신력 있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기관과 동역함으로 나눔의 기쁨을 배로 누리게 되었기



더라이프지구촌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북녘의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찬양집회를 열고 특별헌금을 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큰 감동을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후 목장에서 국제푸른나무를 비롯하여 이 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소식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Q. 추수감사절 찬양집회 이후 많은 성도님들께서 국제푸른나무를 통해 따뜻한 나눔을 북녘에 실천하고 계신데요,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집회와 북녘 어린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온 성도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송정미 사모님이 '샬롬' '샬롬' 찬양할 때, 우리에게도 북녘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 샬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모두 감동의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Q. 더라이프지구촌교회와 김인환 목사님께 '통일'이란?

저에게 있어 통일이란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통일은 반드시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가장 중

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보다 더 절실한 과제는 없으니까요.

Q. 마지막으로 국제푸른나무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국제푸른나무와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공유 해주신 더라이프지구촌교회와 김인환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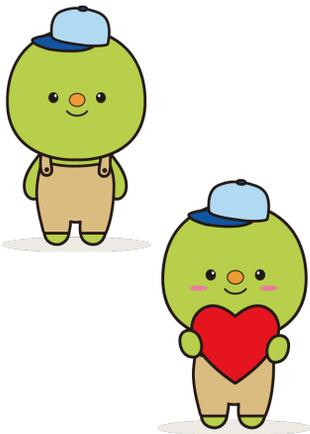


GTI 뉴스

글 | 편집부

■ 기관 캐릭터 푸동이 제작

국제푸른나무의 캐릭터, 푸동이를 소개합니다! 기관 로고를 재해석하여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뉴코리아를 이룬다'라는 비전을 캐릭터에도 담았으며, 세계의 어린이와 장애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따뜻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소식지 곳곳에서 푸동이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 ASEM 장애 분야 고위급 회담 참가

중국장애인협회(CDPF)의 초대를 받아 10월 10일 곽수광 이사장님, 이은영 사무국장님이 협력 대북활동가와 함께 제3회 ASEM High-level Meeting on Disability(ASEM 장애 분야 고위급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장애 관련 정책과 공동 개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남북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는 남북 장애인과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 남북장애인하나되기 콘서트 참여

10월 18일 열린 남북장애인하나되기 콘서트에 박수광 이사장님이 토크쇼 패널로 참가하여, 남과 북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벗어나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애인 공연단이 열심히 준비한 아름답고 멋진 무용, 음악 무대들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남과 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 동탄더라이프지구촌교회 후원콘서트

11월 17일 동탄 더라이프지구촌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CCM 가수 송정미님과 함께 후원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내게 있는 것을 복녉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더라이프지구촌교회와 송정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 감사의 밤 '송정미 Christmas in Love'

후원자 분들을 초청하여 12월 31일 후원자 감사의 밤 '송정미 Christmas in Love'를 진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2019년의 추억들을 간직하고 다가올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푸른나무를 신뢰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녉 땅의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해, 한반도의 치유를 위해서 앞장서는 국제푸른나무가 되겠습니다.



■ 기관 본부사무실 이사

2020년 2월 28일, 정든 용산구를 떠나 국제푸른나무 본부 사무실이 강남구 소재의 공유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오시는 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힘찬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758-2 청담원빌딩 5F

■ 기관 홈페이지 새단장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가 새로이 꾸며졌습니다. 앞으로도 풍성한 소식과 함께 후원자 분들과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www.greentreekorea.org로 접속해보세요!



개인 후원

7	구경님	김난미	김상용	김영구	김정현	김현정	명현진	박영글	백은미	송진영	양경천	유영희	이공천	이수진
	구수선	김난주	김상호	김영권	김종희	김현주	모성원	박영진	백지연	송태규	양문남	유옥숙	이광선	이수하
가병관	구울랑	김남정	김색별	김영민	김종희	김현주	목경화	박영철	백지운	송현주	양반석	유우희	이광호	이순복
강귀련	구의자	김남주	김석원	김영선	김주생	김혜경	문경란	박용준	변다정	송혜인	양승돈	윤아미	이권우	이순애
강기석	구자녀	김남희	김선아	김영순	김주아	김혜나	문상영	박용진	변지환	순혜란	양영아	유일한	이귀우	이순희
강명진	구자춘	김누리	김선애	김영자	김주영	김혜미	문성석	박용천	변진수	신경희	양윤경	유정민	이규민	이승섭
강미야	국필원	김다솜	김선우	김영주	김주원	김혜선	문장혁	박원기	^	신대인	양정미	유준근	이규일	이승철
강수정	국혜인	김대근	김선자	김예성	김준연	김혜연	문정희	박유진	^	신대희	양지윤	유태원	이근숙	이승현
강승범	권경윤	김대영	김선진	김예은	김준영	김혜옥	문지영	박은미	서경득	신동숙	양지은	유태원	이남주	이시은
강양원	권계화	김덕식	김성희	김예인	김준태	김혜운	문혜자	박은혜	서문석	신미령	양현중	유현철	이다정	이애린
강연수	권미남	김덕용	김성민	김용식	김준홍	김혜진	민희재	박은희	서문석	신민	어여경	유화예	이다함	이양순
강영순	권보민	김도영	김성운	김용운	김지선	김혜진	민경신	박일석	서미혜	신보라	엄은숙	유희덕	이덕기	이연용
강영자	권석경	김도훈	김성찬	김용종	김지연	김홍선	민병희	박재숙	서봉래	신선여	엄정혜	유혜란	이덕수	이연준
강유규	권영희	김동건	김성현	김용호	김지원	김환석	민정애	박재옥	서상원	신성규	엄혜정	유사랑	이도균	이연희
강유진	권예은	김동석	김세정	김유란	김지윤	김환진	민지선	박재용	서영대	신아인	윤석수	유선옥	이동선	이영숙
강은현	권옥순	김동준	김세현	김유미	김지현	김효진	민지선	박재현	서영미	신윤철	윤세은	유세정	이동순	이영일
강인표	권용병	김동진	김소연	김유미	김지혜	김훈식	민지선	박정아	서유지	신윤희	윤임숙	유소영	이동춘	이영일
강정수	권은혜	김동찬	김소영	김유진	김지효	김희자	민지선	박정윤	서정순	신은정	윤영숙	유소영	이동현	이영주
강지영	권은	김동은	김소희	김윤복	김지희	김희자	민지선	박정임	서정현	신이든	윤창호	유소영	이동현	이영태
강지윤	권희은	김래미	김승희	김윤아	김진성	김희자	민지선	박정임	서정현	신일선	윤창호	유영관	이두형	이영태
강진욱	권지은	김문희	김수경	김윤우	김진이	김희자	민지선	박정현	서정훈	신일선	윤창호	유영관	이루미	이영태
강진주	권채연	김미란	김수래	김윤조	김진일	김희자	민지선	박정환	서주희	신재필	윤혜련	유영준	이만호	이영화
강소록	권태철	김미선	김수봉	김은경	김진주	김희자	민지선	박종도	석명봉	신정란	오기쁨	유예록	이명순	이옥분
강형덕	권혁주	김미숙	김수봉	김은경	김찬욱	김희자	민지선	박종선	성기청	신지윤	오상우	유요한	이명하	이옥석
강혜정	금강숙	김미영	김수영	김은숙	김찬홍	김희자	민지선	박주미	성승환	신찬양	오수정	유은혜	이미경	이외순
강희룡	김가은	김미옥	김수운	김은숙	김창근	김희자	민지선	박주한	성하준	신혜봉	오승윤	유일수	이미숙	이요섭
강희선	김강은	김미진	김수인	김은실	김창근	김희자	민지선	박주희	손교선	신혜정	오은경	유자영	이미진	이용희
고나영	김경미	김미현	김수정	김인선	김철환	김희자	민지선	박준열	손범식	신경섭	오은경	유자영	이미진	이용희
고동주	김경미	김민구	김수지	김인성	김태경	김희자	민지선	박준영	손승현	신숙자	오주상	유정옥	이미향	이원재
고명진	김경민	김민영	김수진	김인식	김태윤	김희자	민지선	박준원	손아라	신승보	오하준	유주희	이민희	이원정
고민숙	김경상	김민정	김수진	김인자	김태윤	김희자	민지선	박진영	손유표	신임규	오행숙	유지은	이병우	이유진
고성근	김경숙	김민주	김순관	김인혁	김필주	김희자	민지선	박창화	손은미	심정수	오현	유진옥	이보람	이유진
고수남	김경애	김민희	김순화	김일부	김하림	김희자	민지선	박철웅	손정민	심정임	왕금란	유진석	이보람	이유진
고아라	김경호	김민음	김순희	김자숙	김하은	김희자	민지선	박태화	손하민	심정희	유철중	유철수	이보영	이유진
고정하	김경환	김백운	김승옥	김자영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하임	손홍연	심현보	우경애	유춘옥	이복순	이윤경
고현정	김경희	김병하	김시무	김잔디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현숙	송경아	심희숙	우진규	유태영	이상숙	이윤민
고희범	김귀연	김병현	김시원	김재훈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형순	송기철	^	우하진	유태원	이상우	이윤선
공영란	김규명	김보람	김신규	김정규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혜연	송대현	○	원유민	유현숙	이상훈	이윤선
곽수광	김근수	김보성	김신혜	김정민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혜연	송명진	○	원정자	유희선	이상희	이윤정
곽정희	김기영	김부진	김아름	김정은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혜영	송명희	○	원정자	유희선	이서경	이윤주
곽형순	김기은	김상미	김아름	김정은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박희선	송병량	○	원정자	유희선	이선민	이은미
곽혜덕	김기홍	김상우	김아름	김정은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방은영	최금옥	○	원정자	유희선	이선영	이은영
곽효진	김낙환	김상운	김아름	김정은	김한나	김희자	민지선	방중선	송승이	○	원정자	유희선	이선한	이은혜
								배서영	송승일	○	원정자	유희선	이선혜	이은혜
								배요한	송윤재	○	원정자	유희선	이선희	이의주
								배유나	송은솔	○	원정자	유희선	이선희	이인수
								배준수	송은지	○	원정자	유희선	이성덕	이인숙
								배지연	송은혜	○	원정자	유희선	이소망	이임숙
								백두현	송인자	○	원정자	유희선	이영희	이재현
								백승옥	송정실	○	원정자	유희선	이영희	이재준
								백승우	송준우	○	원정자	유희선	이영희	이수연
									송지현	○	원정자	유희선	이수일	이재현

이정림	이혜자	장은희	정수진	조현진	최순미	한명환
이정숙	이호	장익중	정수현	조현진	최순희	한미숙
이정아	이호숙	장인근	정승기	조혜옥	최시온	한빛
이정옥	이호정	장정원	정연주	조혜정	최양희	한선영
이정은	이호정	장주영	정용근	조혜진	최영선	한수정
이정인	이화선	장세영	정윤선	조희주	최영환	한숙자
이정자	이환수	장주원	정은주	주미경	최유빈	한아영
이종구	이효석	장주하	정은하	주은주	최윤우	한장현
이종순	이후남	장진석	정의석	주은혜	최윤주	한종훈
이종예	이희경	장진영	정인선	주정숙	최윤지	한주애
이주나	임경아	장태훈	정재천	지은파	최은성	한지은
이주란	임명오	장한나	정주희	지인희	최재민	한진성
이주미	임상우	장현봉	정지연	지한비	최정임	한현진
이준혁	임서연	장혜련	정진관	진수정	최정하	한혜영
이준호	임성주	장혜진	정진봉	진정태	최정화	함태식
이중원	임영림	장호준	정해순	진찬민	최주백	해피빈
이지담	임예진	장훈	정현옥		최준	허수영
이지선	임용숙	전기천	정현주		최준원	허영미
이지연	임유라	전동민	정현철	★	최지영	허재훈
이지원	임은수	전미연	정혜은	차가람	최지예	허주희
이지은	임은정	전미현	정혜인	차민석	최지이	허지옥
이지해	임자현	전서영	정혜진	차인경	최충실	허태연
이지혜	임재홍	전소현	정효선	채민지	최한나	허한나
이지혜	임재자	전수미	정휘진	채빛나	최향기	허혜수
이진	임중수	전우정	정희경	채석민	최혁재	현은성
이진경	임종화	전우진	제현수	채송아	최혁진	현종국
이진나	임지훈	전유아	조경화	채수돈	최현아	현지애
이진로	임지희	전유진	조계순	채유순	최혜옥	형남식
이찬희	임창민	전은주	조광국	채영아	최혜진	호선욱
이창록	임현섭	전재빈	조규혜	천영자	최희경	홍경은
이창수	임형빈	전준포	조명희	천화련	최희선	홍광현
이철호	임희정	정가원	조민지	최경예	추명선	홍상호
이충원		정경민	조선희	최경일	추수미	홍성숙
이태석	★	정경순	조성래	최금화	추진성	홍영실
이태호		정고운	조승희	최다운	✎	홍예진
이필선	장경진	정공주	조아름	최닷움	탁운조	홍정근
이하영	장덕미	정귀용	조아영	최법섭	태승원	홍정영
이학립	장미희	정기욱	조양희	최병은		홍지영
이해성	장보름	정남경	조영숙	최보영		홍지은
이해솔	장보현	정다운	조영완	최복순	✎	홍현미
이해주	장성진	정명화	조영진	최복화	하상빈	황광민
이향화	장수유	정모숙	조영혜	최서우	하세례	황균욱
이헌구	장숙영	정미경	조위현	최서정	하연정	황명란
이현미	장슬비	정미옥	조윤희	최선영	하연정	황미리
이현옥	장예라	정미자	정노영	최성덕	하영빈	황수민
이현정	장우윤	정방환	조은비	최성민	하영희	황수진
이현중	장유식	정상호	조재숙	최성은	하유진	황예준
이현진	장유진	정선남	조정화	최세나	하혜승	황윤정
이현진	장은기	정선용	조차성	최세진	한규현	황은산
이현훈	장은실	정선희	조천일	최소영	한기봉	황은영
이혜경	장은옥	정성영	조필선	최수영	한기숙	황은혜
이혜경	장은진	정수진	조학래	최수정	한명숙	황인숙

황인영
황정희
황희진
SU YANAN

어린이어깨동무
예전침례교회 여성교회
오제이 엔터스 컴퍼니
월시스
일백복지재단
제일철강
주안장로교회
지구촌선교교회
창동어린이집
천지인터넷서널트럭
티에스산업
푸른나무교회
하기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사랑나눔공동체

단체 후원

개봉교회5권사회
개봉성결교회
거룩한빛맑은샘광천교회
기독교대한감리
꿈꾸는어린이집
꿈이있는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내마음 마주하기 표현 미술심리치료
노블키즈어린이집
다솔
다일복지재단
대구새누리교회
대단한농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아들
대추발한의원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더라이프지구촌교회
더리스
라운세무회계
메디쿼터스
문경당포교회
바름에프앤비
반도이앤씨
사단법인 기운차림봉사단
상하이한인연합교회
서울영동교회
선한목자교회
세교물산
싱가폴한인교회
씨엘엠스타일
아름다운비행
아프리카리더십 지역본부

2019 재무보고

2019년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푸른나무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국제청 홈택스를 통해서 결산 재무재표와 기부금사용명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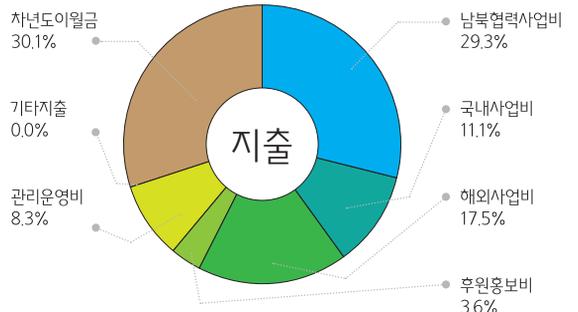
수입내역 (단위: 원)

과목	금액	비율
개인후원금	239,735,582	28.6%
단체후원금	97,579,857	11.6%
물품후원금	38,340,000	4.6%
국고보조금	50,704,000	6.0%
기타보조금	174,581,745	20.8%
기타 수입	4,654,673	0.6%
전년도 이월금	233,948,011	27.9%
합 계	839,543,868	100.0%



지출내역 (단위: 원)

과목	금액	비율
남북협력사업비	246,238,640	29.3%
국내사업비	93,382,000	11.1%
해외사업비	147,210,042	17.5%
후원홍보비	30,272,466	3.6%
관리운영비	69,296,465	8.3%
기타 지출	255,181	0.0%
차년도 이월금	252,889,074	30.1%
합 계	839,543,868	100.0%



나눔참여안내

홈페이지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에서
[후원참여 →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 자원봉사참여]
중 후원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국제푸른나무 사무실 02-3482-2000 으로 전화주시면 상
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통장입금

국제푸른나무 계좌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국민 760737-04-007453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기부자 확인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제푸른나무 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모금

카카오 같이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에 '국제푸른나무'를 검색하
셔서 진행 중인 모금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콩 1개,
같이가치 댓글 1개로 100원이 기부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를 바랍니다.♡



국제푸른나무
Green Tree International

We share the love of God with the disabled and children in North.

북녘 장애인과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눕니다.

0606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58-2, 5층 국제푸른나무
Tel. 02-3482-2000 Fax. 02-516-0288
desk@greentreekorea.org
www.greentreekorea.org